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Does ODA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of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전성희(Jun, Sung Hee)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e-mail : shjun@sunchon.ac.kr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분석모형 및 결과 |
| II. 선행연구 | V. 결 론 |
| III.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 및
정부의 질에 대한 분석 |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 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주제어 : 공적개발원조, 창업환경, 금융환경, 개발도상국

* 이 논문은 2012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I. 서론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저소득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의 빈곤구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빈곤으로 인하여 노동 가능한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부분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저축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낮은 소득수준으로 세금에 기초한 정부의 재정 역시 악화되어 있으므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 특히, 저소득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ODA와 FDI와 같은 외국으로 부터의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다. FDI는 민간 부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FDI를 하는 주체(일반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¹⁾ Lucas(1990)에 따르면 FDI의 경우 자본이 희소한 개발도상국의 자본 한계생산량(MPK: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 자본 풍부국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자본의 유입이 되어야 하지만 금융시장의 비효율성과 인적자원의 차이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으로 FDI 자본의 대부분 유입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로 유입되는 FDI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규모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 개발도상국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국가들로의 FDI는 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일부 개발도상국가로의 FDI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FDI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개발도상국 전체라기보다는 일부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는 소득기준으로 나눈 국가그룹별 ODA와 FDI의 순유입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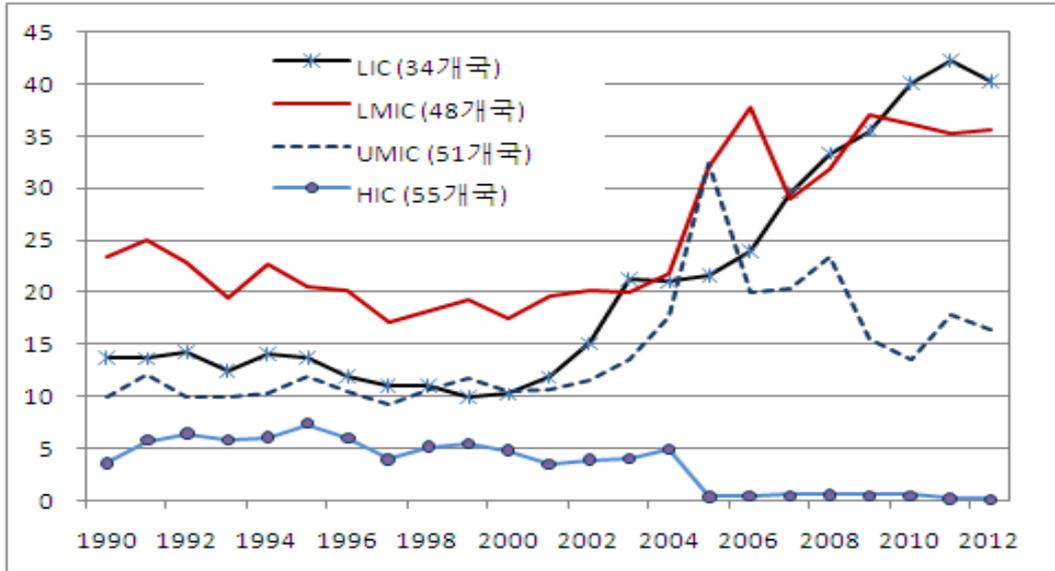
<그림 1>, <그림 2>는 세계은행에서 구분된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국가(LIC; Low income countries), 중저소득국가(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중고소득(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고소득국가(HIC; High income countries)의 4그룹으로 나누어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ODA의 유입과 FDI의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³⁾

1) FDI의 결정은 다국적 기업의 내적요인(internal firm-specific factors)와 환율, 세금, 비관세장벽, 국제교역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하여 FDI의 규모와 location이 결정된다. Blonigern(2005). 물론 외국인투자 중 자산시장에 투입되는 단기자금들도 있으나 저소득국가들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작고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이러한 현상은 'Lucas Paradox'로 알려져 있다.

3) 각 소득그룹에 포함된 국가 목록은 <부록2>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평균 1인당 GDP는 분석모형 및 결과부분의 <표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Net ODA and Aid received (billion of US\$)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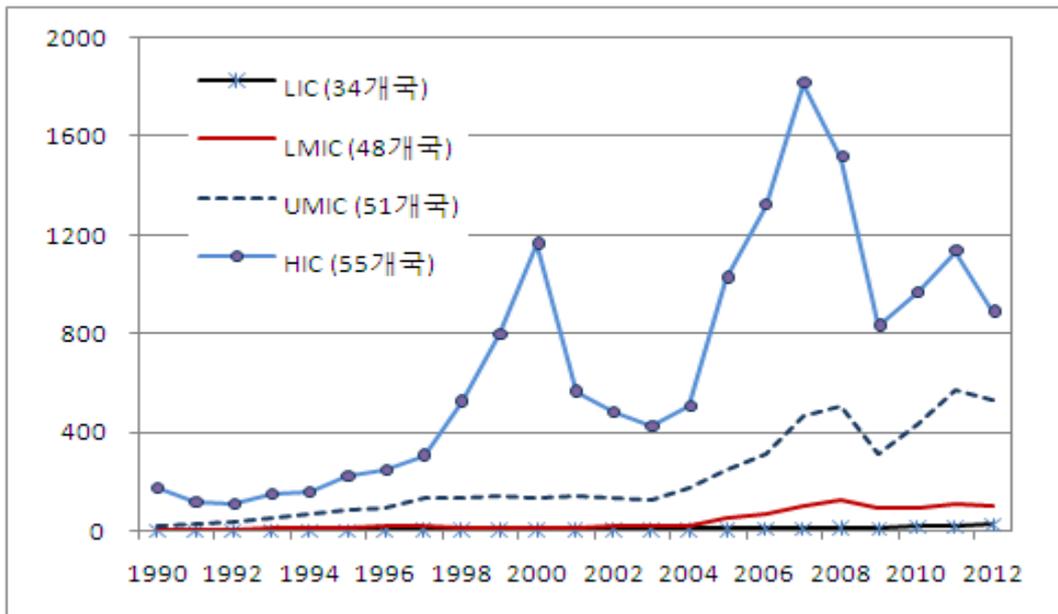
LIC 국가들의 경우는 2000년까지 정체되어 있던 ODA의 유입규모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LIC 국가 그룹에 포함된 국가 수를 고려한다면 LIC 국가들에게 ODA는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C 국가들로 유입되는 ODA의 규모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LMIC나 UMIC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조금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는 2005년 2006년 급증하였다가 그 이후 정체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⁴⁾ 그러나 <그림 2>에서 제시하고 있는 FDI의 규모를 보면 ODA 그래프와는 정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들(UMIC, LMIC, LIC)로 유입되는 FDI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 규모는 고소득국가(HIC)들에 비하여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다. 그룹별 포함된 국가 수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LIC 국가들의 경우 FDI의 규모가 매우 작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FDI의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FDI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인적자원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FDI는 경제적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특정국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⁵⁾ 따라서 LIC

4) UMIC 국가의 경우는 2005년 이라크에 대한 ODA의 규모가 급증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이고, LMIC 국가의 경우는 2005년과 2006년에 나이지리아에 대한 ODA 규모가 급증하였다. 또한 콩고,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2005년에 카메룬의 경우는 2006년에 ODA 규모가 급증하였다.

5) 아프리카의 경우 상위 6개국가의 투자규모가 나머지 48개국의 합한 규모와 같은 정도로 특정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하다. (Wall Street Journal May, 19, 2014) 아시아의 경우도 2000년대 FDI가 중국에 매우 집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FDI의 경우 경제적 유인에 의하여 특정 국가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들과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일수록 ODA가 국가의 부족한 재정 및 빈곤구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지원하는 자본유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Foreign direct investment, net inflows (billion of US\$)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저소득 국가들에게 중요한 자금이 되는 ODA는 구속성 공적원조(tied ODA)와 비구속성 공적원조(untied ODA)로 나뉘어지며 구속성 원조는 경제적 혹은 정치적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ODA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속성 원조와 같이 명시적인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원조에서도 수원국은 더 많은 ODA를 지원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여국의 제도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⁶⁾ 따라서 ODA의 수원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공여국 정부의 정책, 성향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Karim(2011)에 의하면 1971년 독립전쟁이후 사회주의 정부로 시작된 방글라데시는 1975년부터 군부에 의하여 시장체제의 기초인 사유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사유화는 세계은행과 서방세계의 원조로 인하여 더욱 촉진 되었다. 또한 Zia정권시대에는 산업의 민영화와 비국영화(denationalization)정책으로 인하여 해외로부터 민간 부분에 유입되는 투자가 증가하였다. 정

6) 수원국들은 공여국의 ODA정책에 따라서 또는 NGO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서방으로부터의 ODA는 민주화 정도, 인권, 경제적 이익 등에 따라 편향되게 지원되기도 한다. 기독교나 이슬람과 같은 종교적 NGO들의 경우는 포교의 성향을 가지고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슬람 종교의 색채를 강조했던 방글라데시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 위하여 경제발전프로그램에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부의 신설, 여성의 치안부문 진출, 의회 의석을 여성에게 배정하는 등의 다양한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⁷⁾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정책들은 구속성 ODA의 전제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조를 받기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들이다. 방글라데시의 사례는 해외로부터의 원조, 자금의 유치 등이 수원국의 정책이나 경제체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가 ODA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의 증권법 제정 및 정비에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법무부는 라오스 증권감독기구, 한국거래소, 라오스에 현지사무소가 있는 국내로펌회사와 협력하여 라오스의 증권법을 제정 정비하는 것을 지원하였다.⁸⁾ 이러한 지원으로 라오스의 증권법은 우리나라 증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라오스 증권시장 진출과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수원국 제도의 제정과 정비의 지원은 공여국 제도의 영향이 수원국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ODA는 공여국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수원국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OECD(2004)에서도 FDI와 연관된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것을 ODA의 배후효과로 보고 있다.⁹⁾ 또한 미국의 US Foreign Assistance Act에서도 원조를 미국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¹⁰⁾ Kimura and Todo(2010)에서는 일본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 ODA의 주요 목표중 하나가 수혜국으로의 일본 FDI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공여국은 수원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ODA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ODA와 FDI가 보완관계인지 대체관계인지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ODA가 수원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수원국의 투자환경 및 경제적 유인이 민간 기업들의 수익을 충분히 뒷받침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FDI는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ODA와 FDI의 관계만으로 투자환경의 개선 여부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원국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서방세계로 부

7) 이러한 여성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무슬림 종교적 색채를 가진 정권으로써 여성이 공영TV에 출연하는 경우 머리카락을 가리고 나와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8) 법무부, “법무한류의 첫 번째 패키지 창조경제를 지원하다,” 법무부 보도자료 2013.11.15

9) “The OECD motives the disburseme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by arguing that ODA-backed efforts to enhance the investment climate are relevant in the context of attracting FDI” (OECD, 2004, p.18), Harms and Lutz(2006)의 인용을 재인용하였다.

10) Harms and Lutz(2006)의 인용을 재인용하였다.

터의 ODA 유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원국은 ODA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준비를 하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Doing Business 자료의 일부인 창업환경에 관한 설문자료와, 신용정보와 투자자보호와 같은 금융 환경에 대한 설문자료를 투자환경으로 보고 ODA가 이 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국가 분류 없이 ODA와 FDI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을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 중고소득 3그룹의 국가들로 나누어 창업, 금융 환경에 ODA를 비롯한 FDI, 무역개방도, 정부의 질이 어떠한 영향 미쳤는지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ODA가 수원국의 창업/금융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ODA가 FDI를 촉진시킬 수 있는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Alesina and Dollar (2000)에 의하면 FDI는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에 의하여 결정되고, ODA는 경제적 유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식민통치여부, 정치적 협력관계(political alliance))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 FDI와 ODA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ODA의 의도에 민간투자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에 유입되는 ODA와 FDI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다.

Karakaplan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FDI와 ODA간에 유의한 수준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지배구조(체제)와 금융시장의 발전은 FDI에 미치는 ODA의 영향을 개선시킨다고 하였다. Harms and Lutz(2006)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ODA가 FDI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ODA를 통한 공공재의 투자는 민간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FDI를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반면에 정부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본인 만큼 어떤 정부이냐에 따라서 ODA가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권유지를 위한 비효율적인 렌트추구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ODA가 렌트추구에 활용되는 경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부 또는 경제시스템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민간 자본 유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Harms and Lutz(2006)에서는 이러한 렌트추구의 정도는 수혜국 정부의 정치적 통치구조(political regime)와 경제구조(economic regime)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ODA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원국의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ance)을 고려하였다. Harms and Lutz(2006)에서 활용한 정부에 대한 평가는 Kaufmann *et al.*(1999)에서 측정된 6가지 지표의 1997/8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¹¹⁾ 그러나 이후 연도별로 각국 정부에 대한 Kaufmann *et al.*(1999)의 6가지 지표들을 세계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기간 동안의 연도별 정부 평가 지표를 활용할 것이다.

Kosack and Tobin(2006)에서는 Barro(1998)과 Stern(1991)모형에 기초하여 FDI와 ODA가 각각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ODA나 FDI의 효과를 분석할 때 경제적 성장(소득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반하여 Kosack and Tobin(2006)은 UN에서 제공하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활용하여 인적자원 및 삶의 질까지 고려하여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ODA는 수원국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 건강을 포함한 인적발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정부지출을 하는 경우 인적자원의 향상으로 이어져 민간부분의 FDI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ODA는 공여국에 의하여 사용처가 제한되기도 하지만 민간부분으로 직접 유입되기 보다는 수원국 정부를 통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ODA의 영향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화정도와 같은 정부의 질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폐쇄적이고 독재정권이 유지되는 경우 정부지출의 우선순위가 국민들의 인적발달 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치우지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에 FDI 중에서 정부 부문으로 유입되는 자금(법인세 등)은 제한적이고 민간부분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기업을 통하여 가구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민간 자본시장을 풍부하게 한다. 따라서 가구의 수입 증가는 인적발달에 투입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개선되어 경제적 성장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Kosack and Tobin(2006)의 실증분석결과 ODA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인적자원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FDI는 경제성장에 영향이 없었고 국가발전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DI와 ODA는 대체(substitutes)관계로도 보완(complements)관계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Caselli and Feyrer(2007)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MPK: marginal product of capital)에 기초하여 유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소하므로 ODA와 FDI는 대체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Kimura and Todo (2007)은 쌍무간의 ODA와 FDI의 관계를 분석하여 특정국가에서의 ODA가 FDI를 선행하는 첨병효과(vanguard effect)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5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본에서

11) Harms and Lutz(2006)의 분석당시에는 11년 동안의 분석기간(1988-1999)에 1997/8년도의 정부평가 자료만 가능했으므로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만 ODA가 FDI를 선행하는 침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laya and Sunesen (2012)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가정하에서 ODA의 성격에 따라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2가지로 보았다. ODA가 FDI가 투입되지 않는 교육, 건강, 식수 공급, 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투입되는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이 하락하지 않고 인프라 확충으로 오히려 개선되기 때문에 FDI를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OD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이 FDI와 투입경로가 유사하게 직접적인 생산분야에 유입되는 경우 국내소득과 국내저축을 증가시켜 자본의 한계생산을 하락시킴으로써 FDI가 감소된다고 하였다.¹²⁾

이처럼 ODA와 FDI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명확하게 언급하기 어렵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시차가 없이 동일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당해 연도의 ODA와 FDI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Selaya and Sunesen(2012)에서 언급된 ODA로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FDI 증가나 Kosack and Tobin(2006)의 ODA로 교육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통해 노동인력의 확장과 같은 FDI 유인의 변화들은 단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연관성에 기초한 분석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Herzer and Grimm(2012)연구와 같이 30년 장기간(long-run)의 ODA와 FDI의 연관성을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으로 분석한 결과도 있는데, ODA와 FDI는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증가는 민간투자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높은 민간투자는 ODA를 감소시키는 장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분 분석에서는 ODA와 FD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ODA가 FDI를 증가시킬 수 있는냐를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FDI의 경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ODA로 수원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 하여도 경제적 수익이 충분할 만큼 사회간접자본, 인적자원, 금융시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FDI가 증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¹³⁾ 또한 저소득국가의 경우 자연자원의 보유가 발견됨에 따라서 ODA와 무관하게 FDI가 증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ODA가 개발도상국들의 투자 환경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유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다음연도의 FDI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12) Selaya and Sunesen (2012)에서 활용한 OECD의 원조관련 자료는 보완적 투입재(complementary inputs)의 투자를 위한 원조인 사회적 인프라와 경제적 인프라로 나누어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사회적 인프라는 교육, 건강, 물공급 프로젝트 등이 해당되고, 경제적 인프라는 에너지, 교통, 통신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외에도 농업, 제조업, 무역, 은행, 여행관련 원조도 구분되어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되었다.

13) 투자 환경은 제도와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 및 거래비용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창업, 금융 환경의 예도 다양한 투자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ODA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만 환경이라는 것이 정의를 내리고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창업/금융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로 투자환경을 제한하고, 이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Ⅲ.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 환경 및 정부의 질에 대한 분석

1.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 환경

국가의 투자 환경에 대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투자 환경이라는 것은 공여국 기업이 수원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제도, 규정, 관행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 투자 환경은 저임금이라든지, 자연자원의 보유등과 같은 경제적 투자 유인이 아니라 규정, 제도, 관행과 같은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은 계량적으로 측정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자료가 수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하지만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정부의 통치 체제 또는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의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환경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들은 단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들은 실제적인 제도의 변화라기보다는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환경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보다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환경 전체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 항목 중 창업과 금융시장에 관한 항목만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세계은행에서는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10가지 범주에 대한 설문문항을 정리하여 50가지의 지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지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설문은 해당국가 주요도시의 비즈니스 환경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그 국가의 모든 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주요도시의 비즈니스 환경이 그 국가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 간의 비교분석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항목 중 외국에서 투자할 때 고려하는 주요항목은 기업을 처음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된 창업환경과 신용정보와 투자자 보호

등 금융시장과 관련된 금융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창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 특히 제조업의 경우 - 기업을 등록하고, 관련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받고, 전기를 끌어오고, 사유재산을 등록해야 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완료하기 위한 기간을 창업 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표 1>는 소득수준별 국가그룹의 창업 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들은 세계은행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소득(LIC: low income), 중저소득(LMIC: lower middle income), 중고소득(UMIC: upper middle income) 3그룹으로 나누었다.¹⁴⁾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항목의 기간 중 건설 허가를 받는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전기를 끌어오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컸다. 사유재산이나 기업체의 등록과 같은 행정절차보다는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의 소요시간이 매우 길었으며 국가마다의 편차도 크다. 특히 건설과 전기에 관한 항목은 저소득(LIC)국가들과 중간소득(LMIC, UMIC)국가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중간소득(LMIC와 UMIC)국가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에 행정절차 부분의 소요기간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그룹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0년에 비하여 2014년도에는 모든 항목들에서 대부분 개선되고 있다. <표 1>의 BST는 4개 항목의 산술합산 값으로써 일반적으로 건설허가, 사업체 등록 등이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항목들의 소요기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요되는 총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T를 창업 환경을 대표하는 값으로 활용하였다.

<표 1> 소득수준별 국가그룹의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

(단위: 일)

소득 수준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IC	DCP	250.48	75	243.12	75	241.29	75	231.36	75	217.70	75
		215.88	1179	217.41	1179	210.34	1129	205.81	1129	200.93	1129
	GE	192.88	30	162.19	30	160.00	30	162.50	30	161.53	30
		145.73	585	124.00	585	126.23	585	128.21	468	128.06	468
	RP	93.69	5	87.78	5	86.78	5	85.06	5	78.47	5
		84.00	301	81.29	312	81.82	312	79.76	312	77.82	312
	SB	46.89	3	40.92	3	33.16	3	32.03	3	28.94	2
		51.85	216	43.97	216	29.81	105	28.58	105	28.43	104
	BST	576.11	221	526.42	221	513.69	219	504.15	219	480.24	148
		324.18	1741	301.09	1662	288.69	1612	283.22	1606	276.54	1598

14) 분석에 활용된 소득에 따른 국가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 목록은 <부록2>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 수준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MIC	DCP	187.02	51	179.44	51	172.91	39	170.89	54	161.60	54
		101.42	534	85.30	474	87.53	474	84.59	474	73.33	364
	GE	106.98	33	106.83	33	106.08	33	103.17	33	108.98	33
		64.25	284	64.17	284	61.07	284	56.53	284	78.02	470
	RP	75.80	3	67.88	2	63.54	2	61.76	2	58.89	2
85.38		513	77.72	513	75.12	513	74.68	513	75.37	513	
SB	38.59	3	36.39	3	31.68	2	30.50	2	26.82	2	
	35.10	161	32.44	161	27.61	161	27.84	161	22.59	101	
BST	405.24	164	387.71	157	371.75	145	363.74	145	350.34	103	
	158.88	953	146.23	811	143.14	811	137.84	811	127.97	811	
UMIC	DCP	186.16	56	185.26	54	179.67	54	173.50	54	164.56	54
		88.23	429	89.21	429	88.75	430	87.73	430	84.32	400
	GE	111.92	26	106.80	26	106.64	26	105.51	26	102.87	26
		62.17	291	56.85	252	57.23	252	56.57	252	55.45	252
	RP	48.10	2	43.68	2	41.28	2	42.16	2	39.70	2
42.41		197	38.55	197	38.34	197	39.61	197	33.84	252	
SB	42.39	4	41.42	3	40.39	3	40.38	2	29.08	2	
	98.18	694	98.25	694	98.32	694	97.45	694	36.78	208	
BST	386.65	150	376.29	150	363.56	150	353.10	150	328.35	150	
	185.38	1288	177.61	1218	176.54	1218	179.60	1218	135.18	721	
Total	DCP	201.94	51	197.00	51	192.06	39	187.22	54	177.10	54
		135.76	1179	132.22	1179	130.59	1129	129.03	1129	123.61	1129
	GE	130.02	26	120.45	26	119.57	26	119.23	26	120.02	26
		96.85	585	83.64	585	83.49	585	84.31	468	89.51	470
	RP	69.79	2	63.56	2	60.81	2	60.46	2	56.61	2
73.42		513	68.25	513	67.41	513	66.92	513	64.75	513	
SB	42.10	3	39.44	3	35.46	2	34.68	2	28.24	2	
	69.04	694	67.23	694	64.64	694	64.02	694	30.06	208	
BST	440.15	150	417.46	150	403.54	145	395.55	145	374.95	103	
	231.63	1741	213.28	1662	208.33	1612	207.70	1606	189.24	1598	

* 주: DCP(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는 시설물과 관련된 건설허가이고, GE(Getting Electricity)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고, RP(Registering Property)는 사유재산 등록이고, SB(Starting a Business)는 사업체 등록이다. BST는 위의 4항목의 산술합산한 값으로써 각 항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걸릴 수 있는 총기간이다.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 의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함

다음으로 <표 2>에서는 신용, 투자자 보호, 수출입 관련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지표들의 소득 그룹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신용에 관련된 지표(GC)들은 차입자와 채권자의 법적권리 보호와 신용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지표로써 높은 수치를 가질수록 신용에 대한 제도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소득이 높은 국가 그룹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4년 개선된 정도는 모든 소득 국가 그룹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보호(PI)에 관련된 지표들은 주주들의 보호와 관련된 것들로 관련자 거래에서의 투명성, 자기내부거래에서의 책임, 관리자의 부도덕 행위에 대한 주주의 책임에 대한 지표들로써 높은 수치일수록 적절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 관련 지표들은 소득수준이 낮은(LIC와 LMIC)국가그룹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UMIC의 경우는 다른 두 그룹 국가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지표들은 주식시장의 제도에 대해 체감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주식시장이 발달되고 이에 따라 제도도 정비되기 때문에 UMIC가 다른 국가그룹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지표 역시 2010년 대비 2014년도에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아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지표임을 알 수 있다.

<표 2> 소득수준별 국가그룹의 주요 투자/무역 환경

(단위: %, 개, 일)

소득 수준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IC	GC	5.91 3.01	2 14	6.03 3.29	2 14	7.13 3.03	2 14	7.15 3.20	2 14	7.50 3.05	2 14
	PI	17.29 5.36	4 26.7	17.42 5.44	4 26.7	17.79 5.56	4 26.7	17.41 5.91	4 26.7	17.49 5.95	4 26.7
	TB_D	17.97 3.34	12 26	17.75 3.24	12 26	17.72 3.25	12 26	17.85 3.25	12 26	17.82 3.31	12 26
	TB_T	83.09 35.31	46 175	82.28 35.78	46 176	80.72 36.52	42 176	82.68 40.12	43 185	81.91 40.57	43 185
LMIC	GC	7.23 3.47	1 14	7.69 3.60	2 14	8.38 3.40	2 14	8.56 3.49	2 15	8.66 3.48	2 15
	PI	17.25 5.25	6.7 25.3	17.58 5.17	6.7 26.7	17.89 5.17	6.7 28	18.41 5.25	6.7 28	18.38 5.26	6.7 28
	TB_D	15.13 3.94	8 28	15.04 3.99	8 28	15.04 3.99	8 28	14.94 3.94	8 27	14.91 3.92	8 26
	TB_T	55.71 26.72	21 169	53.94 25.80	21 169	53.08 25.74	21 169	52.60 27.24	19 179	50.96 25.64	19 174
UMIC	GC	8.74 3.36	1 16	8.92 3.19	1 16	9.06 3.07	1 16	9.08 3.19	1 16	9.46 3.08	2 16
	PI	21.25 6.07	8 34.7	21.27 6.06	8 34.7	21.46 6.08	8 34.7	21.28 6.34	6.7 34.7	21.40 6.35	6.7 34.7
	TB_D	13.26 3.52	6 24	13.18 3.41	6 22	13.18 3.41	6 22	13.22 3.43	6 22	13.29 3.45	6 22
	TB_T	46.56 34.64	19 203	43.80 29.20	19 163	43.26 28.90	18 163	43.47 29.37	18 162	44.33 30.62	18 162

소득 수준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otal	GC	7.48 3.48	1 16	7.75 3.53	1 16	8.33 3.25	1 16	8.40 3.37	1 16	8.68 3.29	2 16
	PI	18.80 5.89	4 34.7	18.96 5.84	4 34.7	19.24 5.86	4 34.7	19.25 6.04	4 34.7	19.34 6.08	4 34.7
	TB_D	15.11 4.05	6 28	14.99 3.99	6 28	14.98 3.99	6 28	15.02 3.99	6 27	15.02 3.99	6 26
	TB_T	58.93 34.98	19 203	57.02 33.22	19 176	56.11 33.12	18 176	56.79 35.23	18 185	56.28 35.19	18 185

*주: 항목의 GC(Getting Credit)은 부록2에서 제시한 신용에 대한 항목 중 법적 권리와 정보의 측정 값을 산술 합산한 것이고, PI(protecting Investors)는 부록2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관련 4개 항목을 산술 합산한 값이고, total tax의 %는 수익(profit)의 비율로 표시된 것이며, TB_D(Trading across Borders)중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서류의 개수, TB_T는 수출입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 의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개발도상국가에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 가공 무역을 위한 생산 공정의 일부로서의 투자가 많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TB_D와 TB_T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개수와 소요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의 국가일수록 서류도 간소화되어 있고 소요시간도 짧은 것을 알 수 있으나 2010년 대비 2014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서류의 개수는 국가그룹간의 차이도 적고 연도에 따른 변화도 적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요되는 기간은 소득그룹별로 차이가 있으며 LIC국가의 소요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관련절차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래비용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무역거래의 수반되는 기간은 UMIC가 LIC의 절반 수준이므로 UMIC의 무역거래에 대한 거래비용이 LIC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의 창업/금융 환경은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에 의하여 차이가 나고 있으나 최대값과 최소값에서 알 수 있듯이 LIC국가들에서도 높은 수준의 규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들 간의 규정과 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체감하는 정도는 소득수준을 비롯한 자본과 재화의 교역과 같은 시장의 개방정도, 그리고 정부의 질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2. 개발도상국가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투자 환경을 형성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정부의 통치체제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정부가 독재나 군부일 경우 부패가 심할 경우, 폭동이나 내란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비즈니스인들이 체감하는 투자환경은 안 좋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그 국가의 인프라를 책임져야 하므로 정부 정책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부 재정이나 ODA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쓸 수도 있고, 정부의 정권 유지, 권력의 이해관계 등을 위한 렌트추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의 부패정도에 따라서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업무 등이 지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질은 창업/금융 환경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보인다.

<표 3>는 Kaufmann et al.(1999)에 의하여 제시된 6가지 지표, Control of Corruption, Government Effectiveness,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Voice and Accountability에 대하여 소득 수준 국가그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각각 -2.5부터 2.5 사이의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정부의 부정부패가 없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소득그룹 국가별 정부의 질에 대한 지표

소득 수준	항목	2010		2011		2012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L I C	G_CC	-0.854 (0.426)	-1.68/ 0.46	-0.881 (0.434)	-1.68/ 0.43	-0.898 (0.392)	-1.46/ 0.66
	G_GE	-0.984 (0.447)	-1.74/ -0.05	-0.994 (0.462)	-1.87/ 0.07	-1.021 (0.427)	-1.66/ -0.06
	G_SVT	-0.889 (0.735)	-2.55/ 0.34	-0.875 (0.681)	-2.48/ 0.30	-0.878 (0.692)	-2.42/ 0.35
	G_RQ	-0.867 (0.586)	-2.25/ -0.07	-0.881 (0.571)	-2.21/ -0.13	-0.872 (0.529)	-2.24/ -0.10
	G_RL	-0.981 (0.467)	-1.90/ -0.14	-0.977 (0.448)	-1.93/ -0.18	-0.989 (0.416)	-1.72/ -0.24
	G_VA	-0.814 (0.601)	-2.16/ 0.29	-0.817 (0.563)	-2.17/ 0.15	-0.876 (0.521)	-2.15/ 0.07
L M I C	G_CC	-0.552 (0.495)	-1.26/ 0.82	-0.552 (0.496)	-1.31/ 0.87	-0.558 (0.516)	-1.51/ 0.82
	G_GE	-0.564 (0.436)	-1.37/ 0.57	-0.534 (0.443)	-1.39/ 0.62	-0.570 (0.457)	-1.46/ 0.57
	G_SVT	-0.459 (0.976)	-2.67/ 1.48	-0.465 (0.974)	-2.81/ 1.34	-0.447 (0.986)	-2.69/ 1.32
	G_RQ	-0.518 (0.484)	-1.58/ 0.59	-0.507 (0.488)	-1.58/ 0.65	-0.530 (0.510)	-1.61/ 0.68
	G_RL	-0.570 (0.471)	-1.37/ 0.65	-0.575 (0.476)	-1.41/ 0.66	-0.575 (0.482)	-1.27/ 0.70
	G_VA	-0.431 (0.721)	-2.06/ 1.08	-0.434 (0.742)	-2.07/ 1.07	-0.414 (0.717)	-1.98/ 1.05
U M I C	G_CC	-0.272 (0.608)	-1.32/ 1.22	-0.257 (0.592)	-1.34/ 1.23	-0.253 (0.565)	-1.40/ 0.98
	G_GE	-0.158 (0.584)	-1.28/ 1.13	-0.158 (0.601)	-1.62/ 1.03	-0.146 (0.595)	-1.65/ 1.01
	G_SVT	-0.103 (0.818)	-2.26/ 1.54	-0.116 (0.791)	-1.84/ 1.21	-0.124 (0.809)	-1.93/ 1.11
	G_RQ	-0.155 (0.663)	-1.70/ 1.02	-0.152 (0.657)	-1.54/ 1.03	-0.162 (0.675)	-1.66/ 0.98
	G_RL	-0.241 (0.623)	-1.64/ 0.86	-0.271 (0.631)	-1.67/ 0.91	-0.252 (0.617)	-1.69/ 0.94
	G_VA	-0.068 (0.842)	-1.89/ 1.22	-0.063 (0.806)	-1.64/ 1.21	-0.047 (0.771)	-1.58/ 1.20

소득 수준	항목	2010		2011		2012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T o t a l	G_CC	-0.522 (0.571)	-1.68/ 1.22	-0.523 (0.573)	-1.68/ 1.23	-0.528 (0.565)	-1.51/ 0.98
	G_GE	-0.512 (0.594)	-1.74/ 1.13	-0.507 (0.607)	-1.87/ 1.03	-0.523 (0.611)	-1.66/ 1.01
	G_SVT	0.429 (0.908)	-2.67/ 1.54	-0.436 (0.883)	-2.81/ 1.34	-0.433 (0.896)	-2.69/ 1.32
	G_RQ	-0.465 (0.644)	-2.25/ 1.02	-0.466 (0.642)	-2.22/ 1.03	-0.477 (0.644)	-2.24/ 0.98
	G_RL	-0.546 (0.604)	-1.90/ 0.86	-0.550 (0.605)	-1.93/ 0.91	-0.557 (0.595)	-1.72/ 0.94
	G_VA	-0.386 (0.795)	-2.16/ 1.22	-0.389 (0.781)	-2.17/ 1.21	-0.392 (0.763)	-2.15/ 1.20

* 주: G_CC(Control of Corruption)는 부패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고, G_GE(Government Effectiveness)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G_SVT(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은 내란이나 폭동과 같은 무력충돌 없이 정권의 안정적 유지, G_RQ(Regulatory Quality)는 민간부분의 발전을 위한 제도 및 규정의 시행능력, G_RL(Rule of Law)은 사유재산권보호, 계약의 이행, 치안등의 법의 확립과 집행, G_VA(Voice and Accountability)은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출처: <http://data.worldbank.org/>

이들 지표들을 이용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정부의 질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 각 국가그룹에서 연도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LIC 국가들에서 정권의 안정성(G_SVT)은 개선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은 2010년 대비 2012년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LMIC 국가들은 정권의 안정성(G_SVT)와 표현의 자유(G_VA)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이 악화되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UMIC 국가들에서는 부패와 공공서비스, 표현의 자유 항목들이 개선되었으나 다른 항목들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중에서 소득 그룹간 격차가 많이 나는 항목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서비스, 정권의 안정성 항목으로 보인다.

IV. 분석모형 및 결과

1. 자료 및 분석모형

본 논문에서는 ODA의 유입이 그 국가의 창업/금융 환경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투자/금융 환경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다른 설명변수들의 자료도 가능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고, 분석대상은 세계은행의 소득분류기준에서 저소득국가(LIC), 중저소득국가(LMIC), 중고소득국가

(UMIC)로 분류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저소득국가는 총 34개국, 중저소득국가는 총 48개국, 중고소득국가들은 51개국으로 총 국가수는 133개국이다. 이들 소득 국가들의 소득 범위는 <표 4>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통하여 알 수 있다.

ODA(% of GDP)의 규모는 LIC 국가들에서는 평균 14%정도로 나타나나 UMIC 국가들의 경우는 3% 미만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LIC 국가들의 경우 ODA가 자국의 GDP보다 더 큰 경우도 있으며 LIC국가들의 ODA는 FDI(% of GDP)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ODA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자금 유입 통로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UMIC 국가들의 경우는 ODA보다는 FDI로 유입되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ODA의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또한 ODA보다 FDI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는 것은 FDI가 국가간의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UMIC 국가들이 더 큰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FDI가 특정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가들의 GDP 대비 무역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소득수준이 낮고 GDP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량

소득수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IC	BST	460.66	307.96	29	2064
	GC+PI	22.64	7.30	5	41
	ODA (% of GDP)	14.52	14.90	1.33	147.17
	수출입액 (% of GDP)	75.93	48.69	34.67	365.36
	FDI (% of GDP)	4.87	8.83	-3.75	85.37
	정부의 질	-5.43	2.58	-10.76	-1.03
	GDP per Capita	544.12	255.93	143.78	2001.92
LMIC	BST	332.16	153.88	16	975
	GC+PI	24.52	6.87	0	43
	ODA (% of GDP)	8.53	10.83	-0.08	49.96
	수출입액 (% of GDP)	87.12	32.02	23.27	195.36
	FDI (% of GDP)	5.36	6.51	-4.39	53.81
	정부의 질	-3.08	2.77	-9.74	3.47
	GDP per Capita	1930.32	921.75	463.04	4402.76
UMIC	BST	326.77	196.43	9	1288
	GC+PI	29.21	8.33	9	51
	ODA (% of GDP)	2.89	6.95	-0.64	55.53
	수출입액 (% of GDP)	95.65	40.78	21.94	223.06
	FDI (% of GDP)	8.25	26.96	-82.93	366.36
	정부의 질	-0.96	3.41	-10.75	6.25
	GDP per Capita	6454.85	2811.86	1578.37	15853.46

소득수준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otal	BST	361.85	223.84	9	2064
	GC+PI	25.86	8.04	0	51
	ODA (% of GDP)	7.92	11.76	-0.64	147.17
	수출입액 (% of GDP)	88.21	40.36	21.94	365.36
	FDI (% of GDP)	6.39	18.01	-82.93	366.36
	정부의 질	-2.85	3.47	-10.76	6.25
	GDP per Capita	3347.31	3138.91	143.78	15853.46

종속변수는 창업하기 위하여 기업을 등록(SB)하고, 관련 시설물에 대한 허가(DCP)를 받고, 전기를 끌어오고(GE), 사유재산을 등록(RP)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모두 합한 값(BST)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신용관련 지표들과 투자자보호 관련 지표들을 산술합산하여(CG_PI)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BST가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라면 CG_PI는 금융시장을 대변하는 환경 변수로 볼 수 있다. Karakaplan et. al (2005)에서도 금융시장의 발전이 ODA의 영향에 유의한 변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환경 변수(CG_PI)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1인당 국민소득의 자연로그 값, net ODA (% of GDP), net FDI inflow(% of GDP), 정부의 질, 수출입액(% of GDP)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창업/투자 환경은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인당 국민소득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으며, ODA, FDI, 무역액과 같은 변수들은 경제규모가 클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 자체에서 오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GDP로 나누어 GDP대비 몇 %인가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GDP대비 무역액 규모는 그 국가의 개방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더 좋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질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모두 전년도 (t-1) 자료를 사용하였다. 동일연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설명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낮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 다중공산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분석모형은 아래의 식(1), 식(2)과 같다. 본 자료는 패널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δ 와 γ 는 각각 국가와 년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한 고정효과(Fixed effect)이다.

$$\begin{aligned}
 BST_{i,t} = & \alpha + \delta_i + \gamma_t + \beta_1 ODA_{i,t-1} + \beta_2 Trade_{i,t-1} + \beta_3 FDI_{i,t-1} + \beta_4 govern_{i,t} \\
 & + \beta_5 \ln GDP \text{ per capita}_{i,t} + \epsilon_{i,t}
 \end{aligned}
 \tag{1}$$

$$\begin{aligned}
 CG_PI_{i,t} = & \alpha + \delta_i + \gamma_t + \beta_1 ODA_{i,t-1} + \beta_2 Trade_{i,t-1} + \beta_3 FDI_{i,t-1} + \beta_4 govern_{i,t} \\
 & + \beta_5 \ln GDP \text{ per capita}_{i,t} + \epsilon_{i,t}
 \end{aligned}
 \tag{2}$$

고정효과모형에서 R^2 값은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와 연도가 더미변수로 잡혀짐으로써 설명변수의 개수가 매우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결과에서 R^2 값이 설명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과

<표 5>는 종속변수를 창업환경으로 분석한 결과이고, <표 6>은 금융환경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이다. ODA가 창업/ 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LIC와 LMIC에서는 10%유의수준에서 ODA가 증가할수록 창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의 ODA가 증가되면 그 다음해의 비즈니스인들이 체감하는 창업 환경은 개선된 것이다. 개방도를 의미하는 무역액 역시 LIC와 LMIC에서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ODA와 개방도가 창업 환경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질은 모든 소득수준의 국가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안정적, 민주적인가에 따라서 창업 환경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FDI는 창업 환경개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는 정부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ODA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서방세계로부터의 ODA를 위한 정부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므로 창업 환경의 개선의지 또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인 UMIC국가의 경우 ODA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 창업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 - I

항목	LIC	LMIC	UMIC	Total
Constant	1887.853** (679.0024)	56.7126 (274.6968)	-64.8389 (341.0458)	426.2610† (221.1154)
ODA (% of GDP) (t-1)	-1.6186† (0.9909)	-1.9949† (1.0790)	-0.7068 (1.5738)	-1.6826** (0.5791)
수출입액 (% of GDP) (t-1)	-1.2246* (0.4906)	-0.6743† (0.3534)	0.5174 (0.4082)	-0.4765* (0.2320)

항목	LIC	LMIC	UMIC	Total
FDI (% of GDP) (t-1)	1.8803 (1.5340)	1.4332 (0.9132)	1.1708 (1.4200)	1.1370† (0.6843)
정부의 질	-34.4687† (18.4053)	-16.0813* (7.6291)	-24.1792** (9.2865)	-23.0221** (6.2663)
ln(GDP per Capita)	-232.209* (104.913)	41.3037 (35.2155)	39.1082 (37.9714)	-6.9317 (27.8773)
Fixed effect	country, year (dummy variables)			
유효표본수(N)	175	292	298	765
R ²	0.9248	0.8712	0.9161	0.9170
종속변수	BST: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의 합			

주: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

<표 6>에는 신용과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금융 환경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유의성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다. 금융 환경은 ODA나 FDI, 개방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LMIC국가에서만 ODA와 무역이 각각 유의수준 1%와 5%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LIC국가에서 ODA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정부의 질과 1인당 국민 소득만 5%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C 국가에서 ODA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소득수준이 너무 낮아 아직 금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LIC와 달리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LMIC 국가그룹은 중저소득국가로 UMIC와 달리 ODA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ODA가 금융환경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UMIC의 경우는 창업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그룹에 비하여 ODA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수준이 높아 그 영향력도 적기 때문에 금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금융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 - II

항목	LIC	LMIC	UMIC	Total
Constant	-6.5291 (18.7617)	19.6349† (10.6327)	22.4666 (14.4492)	22.2149** (7.8499)
ODA (% of GDP) (t-1)	-0.0114 (0.0273)	0.1325** (0.0408)	0.0569 (0.0667)	0.0135 (0.0205)
수출입액 (% of GDP) (t-1)	-0.0075 (0.0136)	0.0301* (0.0136)	0.0174 (0.0173)	0.0051 (0.0082)
FDI (% of GDP) (t-1)	-0.0419 (0.0424)	-0.0413 (0.0354)	0.0275 (0.0602)	-0.0042 (0.0243)
정부의 질	1.2938* (0.5086)	0.1095 (0.2925)	0.3980 (0.3934)	0.5118* (0.2218)

항목	LIC	LMIC	UMIC	Total
ln(GDP per Capita)	5.8893* (2.8989)	0.2545 (1.3642)	0.3549 (1.6087)	0.6260 (0.9898)
Fixed effect	country, year (dummy variables)			
N	175	293	298	766
R ²	0.8960	0.9259	0.9064	0.9168
종속변수	CG+PI: 신용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지표의 합			

주: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

전체적으로 ODA는 투자환경보다는 창업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UMIC국가보다는 LIC와 LMIC국가들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개발자금의 유입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ODA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서방세계의 창업 환경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UMIC국가들의 경우는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FDI와 같은 민간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함으로 ODA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ODA가 창업/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소득수준이 낮은 수원국들은 해외로부터 자금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므로 ODA의 유입이 빈곤이나 국가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ODA의 유입을 위하여 ODA공여국의 경제시스템 또는 제도들을 받아들여 공여국이 원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ODA수원국의 창업/금융 환경은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인다. ODA의 규모나 영향이 가장 큰 국가그룹인 LIC 국가그룹에서 금융 환경에 ODA가 유의한 영향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금융시장의 형성자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나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이 정비되기 어려우므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금융 환경이라는 추상적인 요인을 데이터 수치화하여 ODA와의 연관

성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양하게 설문조사 되어 항목별로 측정된 비즈니스 환경을 계량분석을 위하여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변수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창업/금융 환경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척도가 만들어 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도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본 연구가 ODA와 투자환경으로 볼 수 있는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법무부, “법무한류의 첫 번째 쾌거 창조경제를 지원하다,” 법무부 보도자료 2013.11.15.
- Alesina, A. and 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March), 2000, pp.33-63
- Barro, R.,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Cambridge, Mass.: MIT Press, 1998.
- Blonigen, B.,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FDI Determinants,” working paper, 2005.
- Caselli, F. and J. Feyrer, “The Marginal Product of Capita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2(2), 2007, pp.535-568.
- Harms, P. and M. Lutz, “Aid, Governance and Private Foreign Investment: Some Puzzling Findings for the 1990s,” *The Economic Journal*, Vol.116 (July), 2006, pp.773-790.
- Herzer, D. and M. Grimm, “Does Foreign aid increase private investment? Evidence from panel cointegration,” *Applied Economics*, Vol.44, 2012, pp.2537-2550.
- Karakaplan, M., B. Neyapti and S. Sayek, “Aid and Foreign Investment: International Evidence, Departmental Working paper, Bilkent University, 2005.
- Karim, L., *Microfinance and Its Discontents: Women in Debt in Bangladesh*,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1.
- Kaufmann, D., A. Kraay and P. Zoido-Lobaton, “Governance matter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196, The World Bank, 1999.

- Kimura, H. and Y. Todo, "Is Foreign Aid a Vanguard of FDI? A Gravity-Equation Approach,"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7-E-007, 2007.
- Kosack, S. and J. Tobin, "Funding Self-Sustaining Development: The Role of Aid, FDI and Government in Economic Succ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60, 2006, pp.205-243.
- Lucas, R., "Why Doesn't Capital Flow from Rich to Poor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0(2), 1990, pp.92-96.
- OECD, *Trends and Recent Development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Paris: OECD, 2004.
- Selaya, P. and E. Sunesen, "Does Foreign Aid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working paper, 2012
- Stern, N., "The Determinants of Growth," *Economic Journal* Vol.101, 1991, pp.122-33.
- Wall Street Journal, "Foreign Investment in Africa Seen at Record \$80 Billion in 2014, Report Shows," Wall Street Journal, 2014. May. 19

<부록 1>

Ease of Doing Business Rank	
Starting a Business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Cost (% of income per capita)
	Paid-in Min.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Cost (% of income per capita)
Getting Electricity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Cost (% of income per capita)
Registering Property	Rank
	Procedures (number)
	Time (days)
	Cost (% of property value)
Getting Credit	Rank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0-10)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6)
	Public registry coverage (% of adults)
	Private bureau coverage (% of adults)
Protecting Investors	Rank
	Extent of disclosure index (0-10)
	Extent of director liability index (0-10)
	Ease of shareholder suits index (0-10)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0-10)
Paying Taxes	Rank
	Payments (number per year)
	Time (hours per year)
	Profit tax (%)
	Labor tax and contributions (%)
	Other taxes (%)
	Total tax rate (% profit)
Trading Across Borders	Rank
	Documents to export (number)
	Time to export (days)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Documents to import (number)
	Time to import (days)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Ease of Doing Business Rank	
Enforcing Contracts	Rank
	Time (days)
	Cost (% of claim)
	Procedures (number)
Resolving Insolvency	Rank
	Time (years)
	Cost (% of estate)
	Outcome (0 as piecemeal sale and 1 as going concern)
	Recovery rate (cents on the dollar)

<부록 2> 세계은행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분류

소득	LIC: Low Income Countries	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국가명	Afghanistan, Bangladesh,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ngo, Dem. Rep., Eritrea, Ethiopia, Gambia, The, Guinea, Guinea-Bissau, Haiti, Kenya, Kyrgyz Republic,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ierra Leone, South Sudan, Tajikistan, Tanzania, Togo, Uganda, Zimbabwe	Armenia, Bhutan, Bolivia, Cameroon, Cape Verde, Congo, Rep., Côte d'Ivoire, Djibouti, Egypt, Arab Rep., El Salvador, Georgia, Ghan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ia, Indonesia, Kiribati, Kosovo, Lao PDR, Lesotho, Mauritania, Micronesia, Fed. Sts., Moldova, Mongolia, Morocco,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Samoa,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Solomon Islands, Sri Lanka, Sudan, Swaziland, Syrian Arab Republic, Timor-Leste, Ukraine, Uzbekistan, Vanuatu, Vietnam, West Bank and Gaza, Yemen, Rep., Zambia	Albania, Algeria, Angola, Argentina, Azerbaijan, Belarus, Belize,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China, Colombia, Costa Rica,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Fiji, Gabon, Grenada, Hungary, Iran, Islamic Rep., Iraq, Jamaica, Jordan, Kazakhstan, Lebanon, Libya, Macedonia, FYR, Malaysia,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exico, Montenegro, Namibia, Palau, Panama, Peru, Romania, Serbia, Seychelles, South Africa,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hailand, Tonga, Tunisia, Turkey, Venezuela, RB

ABSTRACT

Does ODA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of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Jun, Sung Hee*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poor countries cannot accumulate enough domestic saving and government budget for their industrialization. They need to finance the capital for development from abroad sourc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developing countries can improve their business climate for more OD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DA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paper, the business climate are measured by the starting business scores and the scores of credit and protecting investor in Doing Business project of World Bank.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ODA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rting business scores for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but insignificant effect for upper middle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scores of credit and protecting investor, ODA has significant effect only for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Key Words : ODA, Doing business project, Developing country

* Sunchon University